

儒家經典: 「論語」\*\*・「孟子」\*\*・「大學」\*\*・「中庸」\*\*・「易經」\*・「書經」\*・「詩經」\*\*・「禮記」・「左傳」  
・「孝經」\*.

諸子書: 「老子」\*\*・「莊子」\*\*・「列子」\*\*・「墨子」\*\*・「荀子」\*\*・「韓非子」\*\*・「孫子」\*\*.

文學: 「楚辭」\*・「唐詩選」\*\*・「陶淵明」・「李白」\*・「杜甫」\*・「白居易」・「三國志」\*\*・「水滸傳」\*・「西遊  
記」\*・「金瓶梅」・「聊齋志異」・「紅樓夢」・「魯迅集」\*\*.

歷史: 「史記列傳」\*・「十八史略」・「戰國策」.

其他: 朱熹・呂祖謙「近思錄」・王陽明「傳習錄」・孫文「三民主義」\*.

\*\*—6, 7次的 出版社에서 出版.

\*—4, 5次的 出版社에 出版.

무표시—2, 3次的 出版社에서 出版.

但 이상은 몇 개의 書店調査와 出版專門人的 意見을 종합한 不正確한 調査에 따른 것이나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임.

### 三. 「新東亞」誌의 「中國의 古典 100選」

1980年 1월에 「新東亞」誌는 “中國과 中國의 文化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100권의 책”(別冊 附錄 머릿말)을 中國의 歷代 典籍 중에서 選定 解說하여 別冊附錄으로 「中國의 古典 100選」이란 題下에 펴낸 일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中國文學을 專攻한 學者 세 분, 中國哲學者 세 분, 中國史學者 두 분, 都合 여덟 분이 選考委員으로 활약하였다. 그리고 各分野의 專門家들이 한두권의 책을 맡아 解說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中國의 典籍을 <古典>이란 입장에서 意識的으로 골라본 代表的인 보기일 것이다.

여기에 보면 100종의 古典은 文學篇 31종, 歷史篇 26종, 哲學篇 30종, 藝術篇 8종, 科學篇 5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各分野의 책들을 골고루 가려 뽑은 셈이다. 그리고 끝머리에는 選考委員들이 추천은 했으나 100종 속에는 들지 못한 「推薦書目一覽」이 있는데, 여기에는 文學篇 32종, 歷史篇 21종, 哲學篇 30종, 藝術篇 13종, 科學篇 9종이 들어있다. 결국 中國의 典籍 중에서 100종의 古典을 가려뽑는다면 대체로 이들 범위 안에서 着落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에 뽑아놓은 책들을 보더라도 古典으로 읽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띄인다. 이것들이 “中國과 中國文化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성격을 지닌 것들”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體裁나 內容이 現代의인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엉성하고 雜多한 것들이 大部分이다. 먼저 100종의 古典에서 文學篇을 보기로 하자. 文學篇 31종은 다시 크게 나누어 보면 作家들의 個人文集이 6종, 詩文選集이 6종, 小說類가 9종, 戲曲類가 4종, 其他가 6종이다. 個人文集은 陶淵明・李白・杜甫・韓愈・柳宗元・蘇軾의 6명인데, 첫째 中國 歷代의 文人 중에서 이 6명의 文集 단이 뽑혀진 이유도 애매하거나와 詩・散文 뿐만이 아니라 上疏文・편지・碑文 등 生前에 그 사람이 쓴 모든 종류의 글이 다 모아져 있는 이 文

集을 현대인에게 强要하는 것은 무리일듯 하다. 詩歌選集 6종도 中國文學을 공부하는 데에는 꼭 보아야만 할 책들이지만, 그 내용이 모두 너무나 龐大하다. 「文選」은 六朝 이전의 賦·詩·散文 등 各種의 美文을 모두 골라놓은 60卷에 이르는 책이며, 「古文辭類纂」은 論辨·序跋·奏議·書說·贈序·詔令·辭賦 등 13종의 歷代 古文을 모아놓은 74卷에 이르는 散文選集이다. 「詩經」·「楚辭」·「玉臺新詠」·「瀛奎律髓」 등도 모두 外國인이 읽을 古典으로서 完帙을 요구하는 것은 일단 고려해야할 일일듯 하다. 그리고 여기에 小說類가 9종이나 들어있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느낌이 있으며, 더구나 「三言兩拍」은 5종의 小說集이고, 「四大奇書」는 4종의 長篇小說이니, 실제로는 8종의 短篇 내지 中篇小說集과 8종의 長篇小說이 되는 것이다. 戲曲의 분량도 4종이라지만 적지 않다. 「西廂記」와 「琵琶記」는 各各 한 篇의 작품이지만 「元曲選」에는 100篇의 元代 雜劇이 실려있고, 「玉茗堂四夢記」는 4종의 明代 湯顯祖의 傳奇作品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이것들이 中國의 古劇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고른 것이라 말하기도 어렵다. 其他 6종중에서 「文心雕龍」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모두 具體的인 內容을 적은 著述이라 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說文解字」는 본시 字典이니 말할 것도 없거니와, 「彙編叢書」는 詞에 관한 歷代의 著述 또는 詞集 등 10餘種의 著述을 모아놓은 叢書이고, 「太平廣記」는 500卷을 넘는 百科全書 성질의 책이며, 「歷代詩話」는 中國 歷代의 詩에 관한 雜多한 얘기들을 적어놓은 〈詩話〉라는 著述 50餘種(「續歷代詩話」 포함)을 모아 놓은 역시 叢集 성격의 책이다. 「朱子語類」는 朱熹의 門人이나 弟子들이 筆錄한 스승의 語錄으로 여러 차례의 增補를 거쳐 이룩된 140卷에 이르는 大著로, 그의 理氣·性理 등에 관한 얘기에서 시작하여 여러가지 經典·歷史·學問 등에 관한 雜多한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따라서 이것도 古典으로서 일반 知識인들이 읽기에는 不適合한 것이다.

歷史篇에 들어있는 26종의 책들에도 문제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중 본격적으로 中國歷史를 기술한 책은 「史記」·「漢書」·「三國志」·「資治通鑑」인데, 각각 130, 120, 65, 294 卷이나 되는 大著이고 내용도 本紀·書·表·世家·列傳 등 多樣하여 보통사람이 通讀하기에는 問題가 있다. 또 「困學紀聞」·「日知錄」·「文史通義」·「孔子改制考」 같은 책들은 歷史 뿐만이 아니라 中國學問 全般에 관계되는 著述이며, 특히 앞의 두가지는 著者들의 學問 노르나 같은 性格의 각 분야에 걸친 雜多한 論述이다.

이 밖에 中國 歷代의 制度史인 「通典」이나 漢代 經濟論인 「鹽鐵論」, 地理關係 책인 「水經注」·「大唐西域記」·「讀史方輿紀要」·「高麗圖經」·「海國圖志」·「蒙古遊牧記」 등 모두 특수한 專門知識이나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 없이는 읽기 어려운 책들이다. 「史通」·「藏書」·「讀通鑑論」·「廿二史劄記」 등 史論을 쓴 책들도 中國歷史에 대한 상당한 知識을 前提로 하여야만 읽을 수 있는 책들이다. 오히려 政論에 가까운 「貞觀政要」나 「明夷待訪錄」이 내용도 구체적이고 체계도 어느 정도 서 있어 일반 지식인들이 읽기에 좋을듯 하다.

이 밖에 가장 古典다운 성격을 많이 지닌 책들이 哲學篇에 들어있는 30종이라 할 수 있으나, 이것들이 中國思想을 대표하는 책들이나 하는 점에도 여러가지 異見이 있을 수 있다. 특히 「天演論」은 中國의 책이 아니니 말할 것도 없고, 其他 「肇論」·「臨濟錄」·「天台四教儀」·「碧巖錄」 등 佛敎에 관한 著述들이 佛敎思想을 대표하는 책이라 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다. 道敎에 관한 「雲笈七籤」도 그 전부를 일반 사람들에게 읽힌다는 것은 무리가 될 것이며, 儒學史上의 「困知記」·「原善」·「大同書」·「仁學」 등의 위치는 보는 입장에 따라 모두 다를 것이다.

게다가 中國의 先秦 典籍들은 오랜 歲月을 통하여 높은 評價를 받아온 책들, 곧 儒家의 經傳이나 諸子書라 할지라도 적지 않은 문제들을 모두 지니고 있다. 첫째는 그 책의 眞實性, 곧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그 책의 著者나 時代에 대하여 모두 적지 않은 疑問이 있고, 둘째는 그 책의 체제나 내용에도 哲學的인 著述로서는 많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다. 「易經」이나 「書經」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은 十翼을 孔子가 지은 것이다 믿고 있는 학자는 거의 없으며, 虞夏書나 商書는 周書의 일부분 보다는 오히려 뒤에 이루어진 것이라 믿고 있는 학자들이 더 많은 정도이다. 「管子」나 「列子」 같은 것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책은 후세 사람들의 僞託일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며, 그 밖에 「論語」·「孟子」를 비롯하여 「莊子」·「墨子」·「荀子」 등 모든 諸子書들에는 많고 적은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책들에 가짜 成分들이 섞여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내용을 보더라도 「易經」은 본시 臆 臆이어서 그 基本을 이루는 64卦와 卦辭·爻辭 등 자체가 具體的인 思想이나 事物에 대한 敘述은 발견할 수 없거니와, 一貫된 체제나 論理도 찾아보기 어렵다. 「書經」은 옛 史官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라 하는데, 各 篇이 모두 독립된 서도 連貫이 많지 않은 내용들이다. 「老子」나 「論語」는 모두 앞뒤의 글과 관련이 거의 없는 말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禮記」도 여러가지 雜多한 記錄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 밖에 藝術篇과 科學篇에 들어있는 책들은 觀點에 따라서는 모두가 古典으로서의 가치 자체가 문제되는 典籍들이다. 이상의 간단한 검토를 통해서도 中國에는 옛날부터 수 많은 典籍들이 전해지고 있고, 그 중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읽혀온 책들도 있지만, 그것들을 古典으로 현대에 읽도록 하려는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中國의 典籍들 중에서 어떤 책을 古典으로 선택하느냐는 문제도 쉽지 않지만, 또 그 선택된 책들을 어떻게 번역하여 읽도록 하겠느냐는 문제도 간단치 않음을 뜻한다.

#### 四. 우리 文化·敎育의 觀點에서 選擇한 中國의 古典

新東亞의 「中國의 古典 100選」은 지금 中國의 典籍 중에서 古典을 가려냄에 있어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누가 다시 고른다 하더라도 이 100種의 책과 그 附錄인 「推薦書目一覽」

의 105種의 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이 밖에 中國사람들 스스로 뽑아놓은 中高等學生 또는 一般人을 위한 國學에 관한 必讀書目도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中國人 스스로 뽑아 놓은 必讀書目的 例를 아래에 들어본다

[例一：梁啓超]

1) 最低限度の 必讀書目

1. 四書
2. 易經
3. 詩經
4. 書經
5. 禮記
6. 左傳
7. 老子
8. 墨子
9. 莊子
10. 荀子
11. 韓非子
12. 戰國策
13. 史記
14. 漢書
15. 後漢書
16. 三國志
17. 資治通鑑(혹은 通鑑紀事本末)
18. 宋元明史紀事本末
19. 楚辭
20. 文選
21. 李太白集
22. 杜工部集
23. 柳河東集
24. 白香山集
25. 其他詞曲集(數種을 選讀)

2) 國學入門書要目

〈修養應用及思想史關係書類〉

1. 論語
2. 孟子
3. 易經
4. 禮記
5. 老子
6. 墨子
7. 莊子
8. 荀子
9. 尹文子
10. 慎子
11. 公孫龍子
12. 韓非子
13. 管子
14. 呂氏春秋
15. 淮南子
16. 春秋繁露
17. 鹽鐵論
18. 論衡
19. 抱朴子
20. 列子
21. 近思錄
22. 朱子年譜附朱子論學要語
23. 傳習錄
24. 明儒學案
25. 宋元學案
26. 日知錄
27. 亭林文集
28. 明夷待訪錄
29. 思問錄
30. 顏氏學記
31. 東原集
32. 黼菴集
33. 文史通義
34. 大同書
35. 國故論衡
36. 東西文化及其哲學(梁漱溟 著)
37. 中國哲學史大綱 上卷(胡適 著)
38. 先秦政治思想史(梁啓超 著)
39. 清代學術概論(梁啓超 著)

〈政治史及其他文獻學書類〉

1. 尚書
2. 逸周書
3. 竹書紀年
4. 國語
5. 春秋左氏傳
6. 戰國策
7. 周禮
8. 考信錄
9. 資治通鑑
10. 續資治通鑑
11. 文獻通考
12. 續文獻通考
13. 皇朝文獻通考
14. 通志 二十略
15. 二十四史
16. 二十二史劄記
17. 聖武記
18. 國朝先正史略
19. 讀史方輿紀要
20. 史通
21. 中國歷史研究法(梁啓超 著)

〈韻文書類〉

1. 詩經
2. 楚辭
3. 文選
4. 集府詩集
5. 曹子建詩
6. 阮嗣宗詩
7. 陶淵明詩
8. 謝康樂詩
9. 鮑明遠詩
10. 謝玄暉詩
11. 李太白集
12. 杜工部集
13. 王右丞集
14. 孟襄陽集
15. 韋蘇州集
16. 高常侍集
17. 韓昌黎集
18. 柳河東集
19. 白香山集
20. 李義山集
21. 王臨川集
22. 蘇東坡集
23. 元遺山集
24. 陸放翁集
25. 唐百家詩選
26. 宋詩鈔
27. 清真詞(周美成)
18. 醉翁琴趣(歐陽修)
19. 東坡樂府(蘇軾)
20. 屯田集(柳永)
21. 淮海詞(秦觀)
22. 樵歌(朱敦儒)
23. 稼軒詞(辛棄疾)
24. 後村詞(劉克莊)
25. 白石道人歌曲(姜夔)
26. 碧山詞(王沂孫)
27. 夢窗詞(吳文英)
28. 西廂記
29. 琵琶記
30. 牡丹亭
31. 桃花扇
32. 長生殿

〈小學書及文法書類〉

1. 說文解字注(段玉裁)
2. 說文通訓定聲(朱駿聲)
3. 說文釋例(王筠)
4. 經傳釋詞(王引之)
5. 古書疑義舉例(俞樾)
6. 文通(馬建忠)
7. 經籍纂詁(阮元)

〈隨意涉覽書類〉

1. 四庫全書總目提要
2. 世說新語
3. 水經注
4. 文心雕龍
5. 大唐三藏慈恩法師傳
6. 徐霞客遊記
7. 夢溪筆談
8. 困學紀聞
9. 通藝錄
10. 癸巳類稿
11. 東塾讀書記
12. 庸齋筆記
13. 張太岳集
14. 王心齋先生全書
15. 朱舜水遺集
16. 李恕谷文集
17. 鮑琦亭集
18. 潛研堂集
19. 述學
20. 洪北江集
21. 定齋文集
22. 曾文正公全集
23. 胡文忠公集
24. 荅溪漁隱叢話
25. 詞苑叢談
26. 語石
27. 書林清話
28. 廣藝

舟雙楫 29. 劇說 30. 宋元戲曲史(王國維)

(이상 「國學研讀法三種」 臺灣中華書局刊 所載)

[例二: 胡適]

1) 中學國故叢書

1. 詩經 2. 左傳 3. 戰國策 4. 老子 5. 論語 6. 墨子 7. 莊子 8. 孟子 9. 荀子 10. 韓非子 11. 楚辭 12. 史記 13. 淮南子 14. 漢書 15. 論衡 16. 陶潛 17. 杜甫 18. 李白 19. 白居易 20. 韓愈 21. 柳宗元 22. 歐陽修 23. 王安石 24. 朱熹 25. 陸游 26. 楊萬里 27. 辛棄疾 28. 馬致遠 29. 關漢卿 30. 元曲選 31. 明曲選

(再論 中學의 國文教授(「胡適文存」 卷2)에 보임)

[例三: 屈萬里]

1) 初學必讀古籍簡目

<經部>

1. 論語 2. 孟子 3. 周易 4. 尚書 5. 詩經 6. 周禮 7. 禮記 8. 春秋左傳 9. 孝經 10. 爾雅 11. 說文解字 12. 經學歷史

<史部>

1. 史記 2. 漢書 3. 後漢書 4. 三國志 5. 資治通鑑 6. 續資治通鑑 7. 明史紀事本末 8. 國語 9. 戰國策 10. 宋元學案 11. 明儒學案 12. 考信錄

<子部>

1. 荀子 2. 韓非子 3. 墨子 4. 呂氏春秋 5. 老子 6. 列子 7. 莊子

<集部>

1. 楚辭 2. 陶淵明集 3. 李太白詩集 4. 杜工部集 5. 韓昌黎集 6. 白氏長慶集 7. 文選 8. 文心雕龍

(「古籍導讀」 臺灣開明書局刊 所載)

이상과 같은 資料들을 놓고 볼 때 우리 나라 文化와 教育의 觀點에서 古典을 고른다 하더라도 이들 資料의 範圍를 벗어나지 않을듯 하다. 지난 날에 우리 文化나 教育에 어떤 책들이 큰 영향을 끼쳤느냐는 문제는 過去 우리 先人들에게 읽히고 重視된 책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客觀的인 選擇이 가능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책들의 내용을 우리 文化나 教育의 발전을 위하여 살려나가야 하느냐는 문제가 간단치 않다. 梁啓超가 選定한 <最低限度의 必讀書目>과 胡適이 選定한 <中學國故叢書> 및 屈萬里的 <初學必讀古籍簡目>은 中國의 典籍 중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古典을 고르는데에 큰 참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胡適도 <最低限度之國學書目>이라 하여 190種의 책을 選定한 것이 있으나, 우리에게서 너무나 繁多하여 여기에서는 소개를 생략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文化와 教育의 觀點을 살리는 基準으로는 막연한 感이 없지 않으나, 文化面에서는 되도록 여유있는 東洋의인 人間本位의 傾向을 重視하고, 教育面에서는 知識과 아울러 倫理를 強調하던 傾向을 重視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뚜렷한 指標 없이 物質萬能의 傾向으로만 치달아 우리의 性格을 잃어가고 있는 自主的인 우리 文化를 建設하고, 民主社會가 요구하는 良識을 지닌 知識人을 教育하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分野는 文學·哲學·社會科學으로 區分

하기로 한다.

〈文學〉

1. 詩經 2. 楚辭 3. 古詩選集 4. 唐詩選集 5. 宋詩選集 6. 詞選 7. 歷代短篇選
8. 三國志 9. 水滸傳 10. 西遊記 11. 紅樓夢 12. 元雜劇選 13. 牡丹亭記 14. 桃花扇

〈哲學〉

1. 論語 2. 孟子 3. 大學 4. 中庸 5. 荀子 6. 老子 7. 莊子 8. 列子 9. 墨子
10. 韓非子 11. 孫子 12. 朱子文選 13. 傳習錄 14. 抱朴子

〈社會〉

1. 書經 2. 左傳 3. 戰國策 4. 史記 5. 明夷待訪錄 6. 大同書 7. 三民主義
8. 天工開物

## 五. 中國 古典 翻譯 紹介의 方法

옛부터 우리 先人들은 中國文字를 사용하여 왔고, 지금까지도 漢字의 사용은 보편화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말은 漢字語로 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많고, 中國 典籍들이 우리 文化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中國 古典의 紹介 翻譯은 다른 外國의 것과 方法을 달리 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中國 사람들은 옛날부터 人間의 理性이나 論理를 그다지 重視하지 않는 傾向이 있어서 이들 古典의 內容이나 體系에는 한 권의 책으로써 적지 않은 問題들이 담겨어 있고, 또 그 大部分이 옛 封建社會의 產物이기 때문에 이들의 翻譯 紹介는 西洋 典籍들의 翻譯과는 그 성격이 달라지는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먼저 中國의 古典 紹介 翻譯에 걸친 全體의인 方法을 論述하고, 다시 각 古典의 特徵에 따른 方法을 여기하고자 한다.

먼저 全體에 관계되는 方法으로는

첫째 ; 각 古典의 性格이나 또는 學術史的 文學史的 價値 등에 대하여 자세한 解說을 하여야만 한다.

둘째 ; 「大學」·「中庸」이나 「老子」·「列子」·「孫子」 등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어느 정도 體系가 서 있는 책을 제외하고는, 앞의 解說에서 強調한 古典으로써의 價値에 따라 그 내용을 譯者 스스로 다시 體系化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생략하여야 한다.

셋째 ; 譯文은 完全히 現代化하여야 하며, 옛날 사람들의 漢文套의 譯語는 피해야 한다.

네째 ; 漢文은 아직도 우리와 密接한 關係가 있으므로, 小說을 제외한 中國의 古典翻譯은 모두 原文을 실어 譯文과 對照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 漢文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면 쉬운 곳은 직접 原文을 읽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 이들 譯文은 原文과의 對照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 現代語이면서도 原文의 語順에 가깝도록 翻譯하여야 한다.

여섯째 ; 小說을 제외한 모든 책들은 原文을 근거로한 되도록 친절하고 자세한 注釋을 달아 독자들이 原文의 性格을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 原文의 解釋은 學者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說이 있으므로 問題가 있는 곳은 모두 注釋을 통하여 翻譯의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여덟째 ; 詩를 제외한 다른 책들의 文章은 한 篇의 길이가 너무 긴것들이 대부분임으로, 그 내용에 따라 譯者는 다시 작은 단락을 지어가며 번역을 하여야 한다.

다음에는 각 古典에 따른 번역상의 留意할 事項들을 提示코자 한다.

## 〈文 學〉

1. 詩經~西周 初葉(B.C. 11세기)부터 春秋 中期(B.C. 7세기)에 이르는 약 500年 사이에 유행하던 詩歌를 모아놓은 中國 最古의 詩歌集. 中國文學의 鼻祖이며 儒家의 經典으로 존중되고 널리 읽혀, 中國 뿐만 아니라 우리 文化에도 至大한 影響을 끼쳐왔다. 다만 여기에는 305篇의 詩歌가 실려 있는데, 현대인이 읽기에는 너무나 분량이 많고 형식적인 작품도 적지 않음으로 民歌인 國風을 중심으로 하여 빼어난 작품만을 選擇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워낙 오래된 글이라 難解한 句節이 많음으로 「毛詩正義」·「詩集傳」을 비롯하여 현대에 이르는 많은 학자들의 注釋과 研究를 參照하여야만 할 것이다.

2. 楚辭~戰國時代 屈原이 創始한 새로운 詩歌에서 비롯되었다 하나,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楚辭」에는 屈原 뿐만 아니라 宋玉을 비롯하여 漢代의 賈誼·淮南小山·東方朔·嚴忌·王褒·劉向과 심지어 後漢 王逸의 작품까지 합쳐 17篇이 실려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중 離騷를 비롯한 대표작만을 골라 翻譯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漢賦와의 관계도 解說을 통하여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3. 古詩選集~漢代 樂府詩·古詩에서 비롯하여, 魏晉南北朝에 나온 代表的인 詩人들의 작품과 民歌를 選擇한다. 여기에서는 近體詩가 나오기 이전의 中國詩歌의 發展相과 그 特徵을 분명히 들어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唐詩選集~中國詩가 最高度로 발전했던 唐代의 詩歌들을 選擇한다. 아무래도 李白·杜甫·白居易 등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強調되어야 할 것이며, 古體에서 近體에 이르는 中國의 各種 詩體도 一目瞭然하게 망라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宋詩選集~唐詩와는 또다른 品格의 詩를 發展시킨 宋代 여러 작가들의 作品을 選擇한다. 中國詩와 性理學과의 관계 및 古文과 詞를 發展시켰던 宋代文學의 特徵을 아울러 理解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6. 詞選~詞는 中唐 무렵에 이루어져 晚唐·五代를 거쳐 宋代에 極盛을 이루었던 새로운 形式의 詩歌이다. 唐·五代의 작가에서 시작하여 宋代 작가들의 作品을 가려 翻譯하되, 詞의 風格과 形式의 발전도 아울러 理解할 수 있도록 配慮하여야 할 것이다. 譯者의 趣向에

따라 元·明·淸의 작가들도 약간 參與시킬 수 있을 것이다.

7. 歷代短篇選~唐代 傳奇, 宋代 話本과 明清代의 文言小說 중 代表的인 작품들을 選擇한다. 譯者의 趣向에 따라 志怪 같은데서도 약간을 選擇할 수 있을 것이다. 小說은 原文을 對照시킬 필요가 없으나 중간에 흔히 引用되는 詩歌들은 原文을 記入해줄 필요가 있다.

8. 三國志~우리 나라에 옛부터 가장 널리 읽혀진 明代에 이룩된 演義小說이다. 明 弘治年間에 나온 240回本이 原作者인 羅貫中의 작품에 비교적 가까운 版本일 것이나, 文章이나 內容으로 보아 淸代 毛宗崗이 增刪評點한 120回本을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三國志가 出版되었으나 舉皆가 日語版의 重譯인듯 하다. 小說도 學究的인 翻譯이 나와야만 할 것이다.

9. 水滸傳~明代 施耐庵이 지었다는 演義小說. 이 小說에는 여러가지 版本이 있으나 原本은 볼 수가 없고, 가장 얘기가 完備된 것은 明代 楊定見이 刻印한 120回本일 것이다. 그러나 이곳의 登場人物들이 거의 모두가 犯罪者들임으로, 이를 약간 감안한 淸代 金聖歎이 批點한 71回の 第五才子書水滸傳을 翻譯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10. 西游記~역시 明代 吳承恩이 지었다는 演義小說. 「三國志」·「水滸傳」이나 마찬가지로 孫悟空의 얘기는 이전부터도 中國 民間에 널리 流行했던 것이다. 여러가지 版本이 있으나 最近 作家出版社에서 明 世德堂本을 바탕으로 하고 淸代 「西游記評註」·「西游真註」·「新說西游記」 등 여섯가지 版本을 參照하여 校訂 增補하여 出版한 것이 가장 좋은 底本이 될 것이다.

11. 紅樓夢~淸代 曹雪芹의 작품으로 沒落해가는 大族을 중심으로 하여 그 시대의 社會相과 人間相을 그린 장편소설로 一名 「石頭記」 또는 「金玉緣」이라고도 한다. 보통 120回本이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데, 앞 80回 만이 曹雪芹이 지은 것이고 뒤 40回は 高鶚이란 사람이 續作한 것이라 한다. 그 때문에 뒤 40回は 앞 80回와 一致되지 않는 부분조차 있다. 따라서 脂硯齋評 80回本 「紅樓夢」이 가장 早期의 版本일 것이나 일반 讀者를 위하여는 최근 人民文學出版社에서 여러가지 版本을 參考하여 注釋과 校訂을 加하여 새로 펴낸 것이 가장 좋을듯 하다.

12. 元雜劇選~關漢卿·馬致遠·白樸 등 元代의 代表的인 雜劇作家의 작품을 選定 翻譯한다. 다만 이 책의 解說에서는 雜劇의 歷史와 그 特徵·構成 등이 자세히 論述되어야 할 것이며, 注釋도 本文의 解釋 뿐만이 아니라 劇의 演出方法이나 登場人物의 性格과 使用 音樂 등에 대하여서 까지도 注意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3. 牡丹亭記~明代 湯顯祖의 작품으로 一明 「還魂記」라고도 하며 모두 55齣에 이르는 長篇劇曲으로, 明代 傳奇의 代表作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여기의 解說에서는 傳奇의 發展過程과 特徵을 論述하여야 할 것이며, 앞의 元 雜劇과의 比較는 中國 古劇의 理解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14. 桃花扇~清代 孔尙任이 지은 40齣으로 이루어진 傳奇로, 「長生殿」과 함께 清代 戲曲의 代表作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梁啓超·王季思 등의 注本이 나와있어, 작품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여기의 解說에서는 지금까지도 中國에 크게 유행하고 있는 京戲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花部戲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상세한 論述이 있어야 할 것이다.

### 〈哲 學〉

1. 論語~孔子와 孔子의 弟子들의 言行을 記錄한 책으로, 宋代 이후로는 儒家의 經典 중 가장 重視되고 또 가장 널리 읽혀왔다. 모두 20篇이며, 각 篇이 다시 여러 章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각 章과 章 또는 각 篇과 篇들은 모두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지금 보며는 陳腐한 言動도 있음으로, 選譯을 해도 좋을 것이다. 或 孔子의 思想에 따라 內容을 몇 가지로 나누고, 譯者 스스로 體系를 세워 內容을 再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孟子~孟子와 그의 弟子의 合作이라 생각되나, 「四書」의 하나로 널리 읽혀왔다. 모두 7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諸子書 중에서도 그 文章이 뛰어난다. 이 책도 분량이 적지 않음으로 孟子의 特徵을 잘 나타내는 부분 만을 골라 翻譯해도 좋을 것이다.

3. 大學~「大學」은 본시 「禮記」 49편중의 第42편이었으나, 宋代 朱熹가 獨立시켜 「四書」의 하나로 定해 놓은 이래 특히 존중되고 널리 읽혀왔다. 朱熹의 「大學章句」本은 獨斷的인 면도 없지 않으나, 그 나름대로 內容을 體系化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禮記」보다는 「大學章句」를 翻譯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中庸~「大學」과 함께 「禮記」 중의 한 편이었던 것을 朱熹가 「四書」의 하나로 책정한 것이다. 「中庸」은 현실주의적인 孔子의 가르침과는 달리 哲學的인 內容을 論述한 것이어서 儒家思想을 이해하는데 특히 중요한 책이다. 이것 역시 朱熹가 體系의인 解說을 펴하고 있음으로 翻譯은 朱熹의 「中庸章句」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荀子~戰國 末葉 荀卿의 著述로 32편의 글이 실려 있다. 보통 儒家에 속하는 思想家로 性惡說의 主唱者라 알려져 있으나, 그의 時代的인 認識은 法家思想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32편 중에는 그의 著述로서 의심스런 것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역시 選譯하는게 좋을 것이다.

6. 老子~道家의 創始者로 알려진 老聃의 著述. 책이 道經·德經의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 「道德經」이라고도 부른다. 내용은 짧은 道家의 金言集같은 성격의 것이다. 錢穆 같은 학자 처럼 老子를 부정하거나 또 의심하는 이도 많으나, 이 책이 후세 中國文化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므로 자세한 解說을 붙여 完譯하는게 좋을 것이다.

7. 莊子~戰國時代 莊周의 思想이 썩어 있는 책. 莊子是 老子와 함께 道家를 대표한다. 內篇·外篇·雜篇으로 크게 나뉘어고, 다시 거기에는 각각 7편·15편·11편의 글들이 담겨

져 있으나, 대체적으로 內篇 만이 莊子의 思想을 쓴것이고, 外篇·雜篇에는 後世 道家의 思想이 섞여 있다. 따라서 「莊子」는 內篇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한 글들을 選擇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後世 道家思想의 發展 變化도 이해할 수 있도록 配慮하여야 할 것이다.

8. 列子~道家三書 중의 하나라 알려져 있으나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列子」는 후세 사람들의 손에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그러나 도합 8편의 「列子」는 후세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후세 道家思想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책이다. 이것도 분량이 많지 않아 完譯이 가능하다.

9. 墨子~戰國 初期의 墨翟이 엮었다는 책. 墨翟은 兼愛와 勤儉 節約을 주장하여 墨家의 創始者가 되었다. 본서는 모두 71篇이었으나(「漢書」藝文志) 지금은 53篇만이 전한다. 그 속에는 〈墨經〉이라 부르는 墨家의 論理學에 관한 편들과 11篇에 달하는 兵法에 관한 글 및 墨子의 弟子에 관한 글들도 들어있어, 전부를 翻譯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淸 孫詒讓의 「墨子閒詁」는 반드시 參照하여야 할 것이다.

10. 韓非子~戰國 末葉 韓나라의 韓非가 지었다는 책. 秦始皇의 丞相 李斯와 친구 사이였으며, 法家思想을 대표하는 著述이라 할 수 있다. 현재 55篇이 전하나, 그의 法術 刑名을 強調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選擇하는 것이 좋겠다.

11. 孫子~戰國時代 孫喜이 지었다는 중국의 대표적인 兵書이다. 도합 13편으로 軍事의 原理에서 시작하여 여러가지 兵術을 해설한 책이다. 이 책이 근래에 까지도 많이 읽히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논하고 있는 兵術이 社會에서의 處世術과도 통하는 것이기 때문인듯하다. 完譯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2. 朱子文選~「朱子語錄」등을 중심으로 하여, 朱熹의 思想을 대표하는 문장을 골라 翻譯한다. 되도록 宋代 性理學의 全般的인 特徵을 이해할 수 있도록 解說과 選文에 신경을 써야만 할 것이다. 朱熹의 著述은 너무나 龐大하여 選文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王懋竑의 「朱子年譜附朱子論學要語」같은 책을 翻譯하여도 좋을 것이다.

13. 傳習錄~明代 王陽明의 思想을 대표할 수 있는 글을 그의 門人이 편집하여 이룩한 책. 지금 전하는 「傳習錄」은 上·中·下 3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권의 편집시기는 같지 않다. 上·下권은 모두 語錄이어서 되도록 完譯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中권에서는 그의 思想을 가장 잘 대표하는 편지 등 몇편의 글 만을 選擇할 수도 있을 것이다.

14. 抱朴子~東晉 葛洪이 지은 道教思想을 대표하는 책. 그 내용은 內外篇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고, 다시 內篇에는 20편, 外篇에는 52편의 글이 실려 있다. 道教는 神仙術 등 神秘的인 내용도 있으나 中國의 民間信仰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內篇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한 글들을 選擇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社 會〉

1. 書經~儒家의 經典 중 「三經」의 하나. 옛날 史官의 기록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堯典·舜典·夏書·商書·周書로 크게 나뉘어져 있고, 도합 58편의 글이 실려 있다. 그러나 清代 學者들의 考證 결과 이 「古文尙書」는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다. 다만 그 속에는 진짜인 「今文尙書」 33편도 들어있어 다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今文尙書」를 중심으로 한 중요한 글들을 選譯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左傳~「左氏春秋」 또는 「春秋左氏傳」이라고도 부르며, 孔子와 비슷한 시대의 左丘明이 지었다 한다. 보통 孔子가 지은 「春秋」의 내용을 해설한 <傳>이라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春秋」도 「左傳」으로 말미암아 읽혀왔다고 할 수 있다. 春秋시대 歷史에 관한 기록이나 그 중요한 부분을 選譯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戰國策~戰國時代의 일들을 기록한 책으로, 본시 누가 지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지금 전하는 책은 漢代 劉向이 33편으로 정리한 것이라 한다. 이것도 그 중 중요한 기록들만을 選譯하는게 좋을 것이다.

4. 史記~漢代 司馬遷이 지은 中國最初の 본격적인 歷史書이다. 黃帝로부터 저자가 산 漢 武帝에 이르는 시대의 歷史를 記述한 책으로, 本紀 12권, 書 8권, 表 10권, 世家 30권, 列傳 70권 등 총 13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列傳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한 기록들을 選譯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解說에서는 「史記」뿐만이 아니라 中國의 後世 正史의 성격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配慮하여야만 할 것이다.

5. 明夷待訪錄~清初 黃宗羲가 쓴 治道를 論한 책이다. 이 책은 君主論·臣下論에서 시작하여 田制·兵制·財政論 등 13項目을 21章으로 나누어 論述하고 있다. 다만 儒家思想에 執着하고 있는 著者의 태도를 批判的인 눈으로 볼 때 이 책의 가치는 더욱 提高될 수 있을 듯 하다. 完譯이 가능하다.

6. 大同書~清末의 康有爲가 지은 儒家的인 理想社會를 그린 책이다. 西洋의 民主主義나 佛敎의 영향 같은것도 보이기는 하지만은 中國人의 理想 같은 것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完譯이 가능하다.

7. 三民主義~현대 中國의 國父로 떠받들어지는 孫文의 政治理論을 정리한 책. 國民黨政府에서는 지금도 그들의 政治原理를 해설한 經典처럼 떠받들고 있다. 民族·民權·民生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完譯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8. 天工開物~明末에 宋應星이 쓴 책으로, 中國에서는 보기 드문 그 시대의 산업기술에 대하여 쓴 特異한 것이다. 내용은 穀物·衣服·染色·調製·製鹽·製糖·製陶·鑄造·舟車·鍛造·焙燒·製油·製紙·製鍊·兵器·朱墨·釀造·珠玉 등 18부문의 재래식 산업기술이 3권으로 나뉘어 기술된 것이다. 中國科學史의 소중한 자료이므로 完譯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西洋의 古典

朴 熙 鎮

(英文科 副教授)

## 目 次

I. 西洋古典의 意義	1. 選定 原則
1. 古典이란 무엇인가?	2. 古典 百選
2. 西洋의 古典	(1) 文學
3. 古典教育의 오늘	(2) 哲學
(1) 西洋 古典教育의 오늘	(3) 社會科學
(2) 韓國 古典教育의 오늘	(4) 歷史
(3) 現代人과 古典教育	(5) 自然科學
II. 西洋古典 百選	III. 結 語

## I. 西洋古典의 意義

### 1. 古典이란 무엇인가?

自古以來 東西洋을 막론하고 教育이란 위대한 책들을 읽는 것이었다. 위대한 책들이란 지나간 시간의 엄격한 심판을 당당히 견뎌낸 책들을 일컫는다. 심판이 끝난 후 인류가 입을 모아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책들이라는 판결을 내린, 소위 '위대한 책'들을 우리는 '古典'이라고 부른다. '古典'이란 '덧날에 남을만한 옛날 서적, 즉 클래식(classic)'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classic'이라는 영어 단어의 첫번째 뜻은 "最優秀의", "一流의", "傑作的" 등이다.

이렇듯 긴 세월의 예리한 심판과정을 곳곳이 견뎌내는 위대한 작품은 그것이 지니는 가치가, 그것이 發하는 향기가 유달리 탁월하다. 그것이 지니는 가치는 작품을 낳은 작가의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먼 후세의 異地域의 사람들에게도 그 당시 그 민족에 호소했던 것과 같은 호소력을 지닌다. 이리하여 대부분의 위인들이 그렇듯이 위대한 작가들은 그들의 죽음과 매를 같이하여 그들의 국적을 잃게 되고, 또한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사망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후세 사람들의 가슴속에 길이 살아있게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고전이 다루는 내용은 인간의 피상적이고 可變的인 문제들이 아니고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두뇌(head)의 영역보다는 가슴(heart)의 영역을 다룬다는 것이다. 두뇌의 영역은 수시로 변하지만 가슴의 영역은 인간이 인간인 한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예컨대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생활

\* 본 논문은 1982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것임,

을 하다가 室內에서 수도꼭지로부터 물을 받아 먹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두뇌의 영역이다. 그러나 삶의 궁극적인 문제라든가, 삶에 수반되는 희노애락이라든가, 인간과 인간간의 愛憎問題 따위는 가슴의 영역으로서 이들은 쉽사리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렇듯 쉽사리 변하지 않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그 문제들의 본질을 이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 위대한 책들이다. 시대와 민족을 초월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지혜인 까닭에 이 위대한 책들 안에 스며있는 지혜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문제를 어느 인간이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

기나긴 세월에 걸쳐서 축적된 이 훌륭한 책들은 또한 우리에게 인류의 전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전통을 이해함에 의하여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고,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조명해줌으로써, 인간이 인간으로서 더욱 잘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위대한 책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듯 위대한 책들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빛을 얻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더우기 소위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古典이 시사해 주는 지혜를 터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지식인이라는 명칭은 고사하고 교양인이라는 명칭도 지닐만한 사람들이 못되는 것이다.

그러나 古典은 그것이 인간의 지적 사고와 윤리적 경험의 가장 심오한 표현인 만큼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안에 내포된 심오한 의미와 교훈은 표면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술적으로 승화되어 암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편에서의 지적 수련과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전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상당한 양의 시간을 할애하여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에 의하여 피교육자에게 부과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비교적 현대에 가까운 시대에 씌여진 古典들이라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기계문명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맛닥드리게 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피상적이고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한 책들을 읽는 가운데 그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상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구별하여 현대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지혜를 건져내는 일이란 상당한 양의 시간과 정력의 투자 및 지적 수련과 능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그리하여 東西洋에서 과거에는 교육이라면 人文教育을 뜻하였고, 人文教育이란 무엇보다도 고전교육이었다. 따라서 西洋에서는 고전을 공부할 수 있는 언어매체인 희랍어와 라틴어의 습득이 소위 '지식인'의 필수조건이었다. 東洋이나 우리나라의 교육전통을 더듬어 올라가 보아도 그 근본정신에 있어서는 西洋의 인문주의 전통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이나 학문의 목적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만들자는 데에 있었고, 인간의 인간다움이 지식의 추구에 선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었다.

## 2. 西洋의 古典

‘古典’이라는 것의 참모습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것이라면, 그 진수에 있어서는 西洋의 古典이 굳이 東洋의 그것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우기 오늘날과 같이 세계가 나날이 좁아져서 급기야는 하나의 지구가족으로 파악되기에 이르른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西洋古典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古典을 읽어야 하는 일반적인 대의명분에 흡수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현대의 가장 훌륭한 문학비평가 중의 한 사람인 웰렉(René Wellek)이 文學을 ‘英文學’, ‘獨文學’, ‘佛文學’ 등으로 구획을 짓는 것은 뜻이 없는 일이며, 이렇듯 불필요한 구분을 짓지 말고 그저 ‘文學’으로 통일해서 부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던가, 이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필자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 안에서 충분히 공감을 느낄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추세를 한 걸음 더 밀고 나가면 ‘西洋文學’ ‘東洋文學’의 구분이라든가, ‘西洋古典’, ‘東洋古典’의 구분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날도 멀지 않았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영국인과 독일인의 가슴의 소리가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듯이, 동양인과 서양인의 가슴의 소리도 결국은 같은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가슴의 소리를 담은 그릇이 서로 다른 것이어서, 독자가 그 그릇 속에 담긴 내용물을 이해하고, 그 내용물 안에서 지혜를 건져내는 작업에 그 그릇이 약간의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다. 어쨌거나 거의 3,000여년이란 긴 세월 동안 축적되어온 방대한 양의 西洋古典의 寶庫는 인류가 그 창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에게서 지혜를 짜내게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 3. 古典教育의 오늘

### (1) 西洋 古典教育의 오늘

지난 50여년간에 있었던 급격한 사회적 변모에 의하여 古典教育이 미국의 교육계에서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고, 예사이클로피디어 브리태니커 회사가 시카고 대학과 공동 제작한 방대한 『西洋 古典全集』(Great Books, 1952)의 편집장인 허친스(Robert M. Hutchins) 박사는 이 『全集』의 서문에서 통탄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그가 이 全集을 발간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미국을 西洋文化圈에 있어서 하나의 原型으로 간주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현상, 즉 고전교육의 不在現象은, 인류의 知性史에 있어서 가공할만한 탈선이며, 기필코 시정되어야 할 파오이지 절대로 인류 文明발전의 한 증거가 아니라고, 허친스박사는 힘주어 말하고 있다.

사실상 오늘날과 같이 全人的 教育, 技能人이 아닌 人格體로서의 인간교육이 범세계적으로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대도 드물다 하겠다. 기계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이에 부응하여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진 나머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왜소해질 대로 왜소해지고, 자칫 잘못하면 인간이 인간사회에서 거의 완전히 소외되어 그 존재이유를 상실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갈 수 있게 된 시대가 현대인 것이다.

그래도 西洋의 고전교육의 실패는 허친스박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완전히 암울한 상태에 있지는 않다. 물론 과거의 고전교육의 상태에 비교해 볼 때, 기계문명의 급속한 발달이라는 시대의 추세에 부응하여 교육이나 학문의 분업화와 전문화 현상이 심화되는 바람에, 인문교육 부문이 상당히 약화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엄연히 인문교육의 명맥은 이어져 나가고 있다. 고전교육의 대체언어이던 회랍어와 라틴어의 습득은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전락(?)했으나 西洋의 고전교육은 아직도 교과과정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전의 번역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고전작품이 훌륭하게 번역되어 있는 실태이다.

## (2) 韓國 古典教育의 오늘

視線을 우리나라 쪽으로 돌려볼 것 같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李仁浩教授가 서울大學校 『人文論叢』 第8輯에 기고한 “人文科學 研究 및 教育에 관한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美國 名門大의 교과과정에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양의 고전이 교과과정에 필독서로 들어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李教授가 例로 제시한 美國의 名門大學 中の 하나인 컬럼비아대학의 人文學 강좌의 독서목록(필독서)을 살펴볼 것 같으면, 西洋의 중요한 古典이 폭넓게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이요, 西洋古典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수효의 동양고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허친스박사는 西洋(구체적으로 美國)의 고전교육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도 통탄을 금치 못하고, 현대학문의 지나친 분업화와 전문화 현상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東洋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의 분업화나 전문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반면에 우리나라 특유의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西洋의 고전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전통적인 인문교육에서도 완전한 단절이 생기고 말았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에만 강세를 두어 온 나머지 人文系列의 科目들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이다. 물질적인 성장이나 혹은 사회적인 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科目(主로 人文科學 科目들)들은 정부차원에서 소홀히 해왔다. 따라서 마야흐로 이제 우리는 한국 고전교육의 실패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만 하는 시기에 당도해 있다. 현대 우리나라의 대학사회에서는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어떠한 존재이며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합의가 없을 뿐더러, 그러한 질문들을 던져보는 분위기마저 사라져가고 있다. 학생테모 방지에 급급